

광주시 공공기관 채용 부적정 14건 적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와 부적절한 채용 절차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9일 광주시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과 2017년 10월 이후 신규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벌여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주의 12건, 개선 2건 등 14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하고 경징계 1명, 경고 4명, 훈계 2명 등 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채용비리와 관련된 직

김대중컨벤션센터 윤장현 전 시장 사기사건 연루 광주환경공단 등 면접심사 위원 제척절차 미준수

원 A씨가 2018년 1월 단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의 아들을 단기계약직으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채용 사이트에 먼저 공고한 후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채용절차도 부적절하게 진행했다

광주환경공공단과 광주교통차량사업소 등지원은 2018년 신규채용 최종 면접대상자 중 공무원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데도 같은 기관 근무자를 면접심사위원에서 제척하지 않고 인력풀제에도 활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2017년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시험공고

등에 없는 규정을 적용해 면접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문화재단,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등은 기간제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의 배정 집수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은홍 기자

美타임스퀘어 광고관에 화재 발생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관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빠르게 진압된 덕분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톱슨 로이터 빌딩'으로 알려진 브로드웨이 42~43가 건물의 옥외 광고관에서 불길이 일어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관 8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광고관은 건물 3~4층을 덮고 있었으나 광고판 너머로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안전 진단과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태국서 출생 직후 생매장된 아기 개에 구출

태국 북부 반농캄 마을에서 태어나자마자 10대 어머니에 의해 산 채로 묻힌 신생아 남자아이가 사람 냄새를 맡은 개가 찾아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의해 구출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남자아이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려 한 15살 모친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생매장됐다.

그러나 핥고이탄 이름의 개가 이 아이가 묻힌 곳에서 계속 찾아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땅을 파자 아이의 다리가 드러났고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이 불편한 개 주인은 "핑퐁은 나에게 충성스럽고 들에서 내가 소똥을 들보는 것을 도와준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핥고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아이를 생매장한 15살 소녀는 신생아 유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과누와 푸타캄이란 경찰은 이 소녀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심리학자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소녀의 부모는 남자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결정했다.

필리핀 마닐라 열차 추돌사고로 29명 부상

필리핀 마닐라 수도권에서 18일 열차 추돌사고가 일어난 적어도 29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날 늦은 밤 메트로 마닐라의 서부를 운행하는 경전철 노선 2에서 열차 1대가 정차한 다른 열차를 받으면서 이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핑음과 함께 탑승객들이 바닥으로 쓰러졌다고 전했다.

린 파라가스 자네오 마닐라 경전철교통관리청 대변인은 GMA 뉴스에 부상자 진료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GMA 뉴스는 추돌사고로 생긴 잔해가 선로 밖으로 떨어졌고 주변 도로에도 흩어져 있다고 소개했다.

마닐라 경전철교통관리청은 성명을 내고 관제센터와 협력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전철 노선 2는 지난 2009년 메트로 마닐라를 주행하는 급행열차편으로 개통했다.

아프간서 폭탄테러에 민간인 18명 사상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 주에서 18일 폭탄테러로 인해 민간인 최소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현지 관리가 밝혔다.

헤라트 주정부 집라니 파르하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오베 지구에서 지역 행정수장을 태운 차량이 지날 때 오토바이에 장착한 폭탄이 터져 주변에 있던 민간인 18명이 죽거나 부상했다고 전했다.

파르하드 대변인은 폭탄공격으로 행정수장 탑승 차량과 민간차량이 피해를 보았으며 사상자는 민간차량에 있던 이들과 있다고 설명했다.

부상자는 지역 병원으로 급히 옮겨 치료 중이나 일부가 위중한 상태에 기에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아직 발병을 자처하는 무장세력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프간 당국은 탈레반 반군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다.

탈레반 반군은 지난달 초 이래 아프간 곳곳에서 연례 대공세를 펼치면서 그간 반군과 정부군, 경찰, 민간인을 합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

반군은 자신들의 공격 목표인 공공장소와 군용차량 행렬, 기관 건물, 검문소 등 주변에는 가지 말라고 민간인에 경고하면서 아프간 정부를 지지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다.

경찰, 음주운전 관련 내부징계 강화한다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경찰도 음주운전 관련 내부 징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에 대한 징계대상·징계수준 등 내부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에 대한 징계대상 기준은 기존 0.06%에서 0.03%로 낮아진다.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치가 0.03%에서 0.03%로 낮아지는 것과 동일하게 내려가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조치를 받을 경우, 징계는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면허 취소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정직' 처분을 받아왔다.

특히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두 차례 적발됐을 경우 최대 '파면' 처분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파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냈을 때 내리던 최고 수준의 징계다. 그동안은 '강등'~'해임' 사이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뉴스스



활짝 핀 빨간장미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꽃구경을 하고 있다.

5·18 39돌 금남로 국민 염원... '진실 규명·왜곡 근절을'

범국민대회 1만 여명 참석

5·18민주화운동 39주기인 18일 행행 중심지였던 광주 금남로에 진실 규명과 역사 왜곡 근절을 촉구하는 국민 염원이 보였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5·18 민중항쟁 39주년 행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 진실 규명!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망언 의원 퇴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회사, 주제 발언, 문예 공연, 결의문 낭독,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1만 여명(주최 측 추산)이 대회에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회에서 신군부의 현정 유린과 무차별 학살에 맞선 오월 영령의 송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다.

학살 책임자 헬기 사격 등 5·18 핵심 의혹의 진상을 낱알이 밝혀 역사 왜곡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속 출범 ▲5·18 망언 의원 퇴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사회대개혁·한반도 평화 등을 촉구했다.

김제규 행사위 공동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광주 학살의 원죄를 깨닫지 못하는 극우세력과 자유한국당의 5·18 왜곡이 계속되는 한 5·18은 1980과 오늘이 다르지 않다"며 "5·18 진상 규명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후식 행사위 공동위원장은 "신군부의 불법 정권 찬탈을 온 몸으로 저지했던 1980년 5월 광주의 정신으로 한국당의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인권·평화·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운 5·18시국회의 대표는 "5·18의 진실은 국내외 언론을 통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진 진상조사위원 선정에 협조하고, 망언 의원 3인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복 6·15 남북위원회 위원장은 "5·18항쟁이 6월 항쟁과 촛불항쟁으로 계승된 것처럼 이번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문제를 미국의 승인에 맡기는 굴종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금남공원 열에서 보수성향 단체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 집회를 연 뒤 총장로를 따라 행진했다.

보수성향 단체는 행진 과정에서 육설·조종을 반박했지만 광주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응했다.

최남규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척이는요... 자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여기까지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